

# “하반기 가계부채 · 구조조정 등 주목”

현대경제연 '주요경제 이슈' 보고서... 수출 반등 기회 · 미국 경제 회복 약화 · 중국 경제 긍정 신호도

가계부채 관리 가능 수준  
풍선효과 · 금리인상 등은 변수  
구조조정, 단기적 약제로 작용  
미국 경제 회복력 약화  
중국 하방 리스크 축소

하반기 한국 경제가 주목해야 할 5대 이슈로 가계부채와 G2(미국·중국)의 경기 동향 등이 선정됐다.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며 한국 경제의 회복 모델링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들 이슈들이 향후 경기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 분석했다. 2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하반기 국내의 주요 경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5대 주요 경제 이슈는 ▲관리 가능한 가계 부채 문제 ▲산업구조조정의 충격과 ▲수출의 반등 기회 도래 ▲미국 경제의 회복력 약화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 축소 등이다.

### ◇가계부채 관리 가능할까... 구조조정 단기적으로는 악재

올해 1분기말 국내 가계 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 규모는 122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비 1098조3000억원 대비 11.4% 증가했다. 특히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분양시장 호조로 같은 기간 8.4% 기타 대출(비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은 10.9%씩 늘었다. 하반기에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다행히 은행권 주담대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3월말 36.8% 원금분할상환 비중은 38.9%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또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5년 기준 66.9%로 가계 재무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다. 단 현재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은행권에만 적용되고 있어 비은행권 및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확대될 우려가 존재한다. 또 향후 국내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요인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연구위원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비은행권, 제2금융권 및 신용대출 등



360도 회전하는 노트북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에이수스의 프리미엄 노트북 '젠북 플립 UX360'을 선보이고 있다. 이 모델은 에이수스의 대표적인 하이엔드 노트북으로 360도 회전하는 기능을 갖췄다.

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가계가 상환 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구조조정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는 긍정적 역할을 하겠지만 단기적(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조선·해운업을 위주로 다수의 실업자 지역경제 침체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협력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신속한 재취업 지원 등의 대책으로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시 신용위험평가 등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잠재 부실요인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수출 전망은 나쁘지 않다. 국제 유가 상승세 전환, 세계 수출물량 침체 완화 등 대외 여건에 긍정적 신호가 관측되고 있어 하반기 수출의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수출물량 감소율도 개선되면서 물량 측면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 회복, 세계 교역량 증가를 개선

등 수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수출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춤·중국 기세? 미국 경제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미국의 민간소비 개선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투자 및 수출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미 연준은 수출·투자 부문의 부진을 이유로 지난 6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2%에서 2.0%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고용 여건과 물가는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미 연준은 올해 한 차례 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경제는 비교적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3년 7.7%에서 2016년 1분기 6.7%로 둔화됐지만 최근 들어 그 하락세가 축소되는 ‘완만한 L자형 성장패턴’을 보이고 있다. 또 산업생산, 부동산 등 내수부문은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향후 경기가 소폭 개선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 경제의 회복력 약화와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 축

소는 각각 한국 수출 경기에 부정적·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미국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는 동시에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맞춤형 수출 분야를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진수 기자

### SK텔레콤, 5G 장비 시연 성공

SK텔레콤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과 함께 5G(5세대 이동통신) 시험망 장비 개발에 시연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사는 연말까지 5G 단말, 무선전송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5G 시험망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고 유선과 무선을 아우르는 5G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시연은 5G 시험용 장비는 CPU·메모리·디스크와 같은 구성요소를 각각의 모듈 형태로 분리한 후, 제공 서비스에 맞춰 최적화해 조합하는 모듈 형태다. 5G 초연결망에서 각기 다른 서비스가 요구하는 인프라 성능에 맞춰 사용자별로 하드웨어를 변경할 수 있어 네트워크망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SK텔레콤은 전했다. 이번에 시연한 장비는 연말 구축될 예정 5G 시험망에 적용돼 5G 시스템 성능 검증에 활용된다. /인진수 기자

## 펀드 위험등급 6등급 세분화

금감원, 유익한 5가지 금융투자서비스 안내

펀드 위험등급이 수익률 변동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10년만에 재편된다. 위험 등급 산정이 정교해져 투자자들이 상황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위험등급 서비스를 비롯해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5가지 금융투자서비스를 23일 안내했다. 해당 서비스는 ▲펀드 위험등급 ▲관심기업 공시정보 실시간 알람 ▲펀드 판매회사 One-Step 이동 ▲고령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펀드 온라인 가입 등이다. 펀드 위험등급은 2006년 도입됐는데 ‘투자자’ 기준으로 분류하다 보니 실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절반이 넘는 펀드가 1등급(58%)으로 분류되고, 일반 주식형 펀드와 위험도 높은 레버리지 펀드를 동일한 1등급으로 취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펀드 위험등급을 다음달 4일부터 바꾸기로 했다. 위험등급을 개별 펀드의 최근 3년간 수익률 변동치를 기준으로 6등급으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수익률 변동성을 지표로 1등급은 25% 초과 2등급 25% 이하 3등급 15% 이하 4등급 10% 이하 5등급 5% 이하 6등급은 0.5% 이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위험등급

은 투자설명서에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투자종목의 최신 공시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싶다면 ‘관심기업 공시정보 실시간 알람 서비스’가 유용하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이 서비스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등재된 기업 등의 최신 공시정보를 투자자의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금감원 DART 홈 페이지(<http://dart.fss.or.kr>)에 접속해 공시정보알람을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펀드 온라인 가입 서비스’도 있다. 5월말 현재 은행 증권사 등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전용펀드는 3037개이며, 15개 은행·증권사에서 온라인 ISA를 운영 중이다. 희망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펀드슈퍼마켓(<http://www.fundsupermarket.co.kr>)에서 원하는 펀드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단 상품 가입시 상품구조와 원금손실 가능성 여부 등 세부 조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투자 상담’과 ‘한번의 신청만으로 펀드를 이동할 수 있는 펀드 판매회사 원스톱 이동 서비스’도 추천했다. /인진수 기자

## 수출입은행, 부실여신 2% 이하로 낮춰

구조조정 전문위원회 설립 등 통해 2020년까지

수출입은행이 경영관리를 통해 3.35%인 부실여신비율을 2020년까지 2% 이하로 낮춘다. 수은은 이를 위해 구조조정 전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외부전문인도 신설한다. 또 리스크 관리 인력도 확충해 건전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수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은 혁신 및 기능강화 추진방향’을 23일 발표했다. 쇠신안은 크게 엄정한 경영관리 체계 확립과 필수적인 정책금융지원 강화로 구성됐다. 우선 수은은 경영관리를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고 결과를 토대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진단할 방침이다. 또 여신심사 과정에서 신용등급에

의존한 방식에서 탈피하고 금융지원 방식별로 맞춤형된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 물론 기획재정부의 평가도 별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시외이사 비율도 확대하고 경영지문 위원회에 평가기능을 부여한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개 본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핵심기능 위주로 조직을 개편한다. 필수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 지원 기구들의 금융부문 총괄 간사 역할을 전담해 체계적인 수주 지원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인진수 기자



###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